





22

YOUTH VERSE

제주청년예술인
인터뷰집

CONTENTS

청년예술 처음발표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임예빈, 김수민, 김규리, 박도연, 노슬미, 강지훈, Zlog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문한슬, 김승민, 현대영, 이연화, 이소희, 곽고을, 이상언

청년예술창작공간 임차료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최재령 현상원 김연정 서민우

청년 준비, 땅!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이가은 이계나 정미혜 성원혁 송준한
현예찬 최유라 윤보배 김경만 브로컬리연구소

기획프로젝트 스밈 선정 예술인

이인아 박준석 고산동산 박민희 장혜연 오종협 이은경 송형훈

임예빈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무해한 기획자 임예빈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에 있어 모두에게 무해한 존재감을 가진 기획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 6월, '유기적틈'이라는 주제로 애월의 작은 카페 옆 돌 창고에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나), 우리(나)와 자연, 이 사이의 틈과 공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작가들의 생각과 관람객의 의견을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어요. '현대음악'과 '설치미술' 두 개의 장르가 혼합된 복합 전시 형태로 총 3악장으로 구성된 음악에 맞춰 전시공간을 분리한 게 요점이었어요.



[틈: 유기적 관계] 展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기획자로서 전시를 준비하며 저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획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유연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함께하는 작가들에게 전시 기획을 설명하는 일, 공간을 위해 작은 테이블의 배치까지도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마주하는 기획자는 그들을 상처 없이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면 어딘가에 좋은 역량을 품고 있진 않을까?’라는 마음을 항상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그 역량을 발견해내고, 또 밖으로 표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요.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내면을 표출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고 싶어요!

김수민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확신을 의심하는 작가 김수민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어떤 상황에 대하여 남을 힐난하고 비웃는 등의 행위는 나는 상대방과 다르다는 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지 않았을 뿐, 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그동안 오디오 비주얼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주로 해 왔으나, 올해부터 '전시'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확신에 대한 부정과 의심을 주제로 한 '시선과 불확실'이라는 개인전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창'이라는 전시의 비주얼 제작에 대해 협력 작가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3면에 투사되는 작품으로 오디오와 상호작용하는 걸 보며 재미있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는 1월엔 windmill(서울 용산구), 7월 스튜디오126의 뉴 뮤직인 제주 행사(제주시 삼도이동), 10월에는 공간 투(서울 영등포구)에서 시연했으며, 11월 17일에는 콘텐츠 진흥원의 다른 프로젝트의 비주얼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김수민 개인전 [시선과 불확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오디오 비주얼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주로 서울에 있다 보니 제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를 계기로 제주에 머물면서 많은 전시와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주 작가님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업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고, 제주의 바다와 오름의 넓은 공간은 그 작업을 좀 더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제주라는 장소는 특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 듯, 제주에서는 오디오 비주얼을 접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었는데요. 새로운 음악을 제주에 소개하는 공연인 '뉴 뮤직 인 제주'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이런 장르를 소개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제가 사용하는 '터치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모교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탓에 할 수 없게 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라난 곳이지만 스스로의 작업을 위해 떠나야 했던 제주를, 다시 돌아오고 나서야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곳이 나를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듯한, 집이 아닌 제주를 느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많은 청년 예술가가 모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에게 좀 더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작업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저 또한 그런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규리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하다 보면 나의 감각들이 일깨워지는 것만 같다. 어느 순간 머리 안에 울려 퍼지는 울림의 감각을 곤두세운다.

그렇게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때로는 그림으로 그려 스스로가 느낀 경험들을 해석해 보았다. 이 작업 속 작고, 큰 관심들은 점차 나와 그것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시켰으며, 나는 느껴지는 울림들과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 움직임들은 마치 미지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흐릿한 여운을 남기며, 나의 머릿속에 형체를 만들어 갔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세계, 그들은 세포 도움 없이 자각하는 힘을 정의하는 것이 주요함을 아님을 또 지금 느끼는 의문의 필요성을 뇌에게 되묻는다. 그러곤 곧 의문 따위는 필요하지 않음을 느끼게 만든다. 현재 나는 등잔 밑에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 신비롭고 다채로움 속 어느 신경세포들이 교차되는 순간 육체가 반응한다.

평화롭다.

나의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또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묻는 바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대하다. 또한 무의식은 우리를 대변하기도 한다.

작품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본다면 각자 머물고 있는 정거장이 어딘지를 또한 그 정거장에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을 원망할 만큼 후회스러운 정거장이라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쁨의 정거장이라도, 연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경험을 기록하는 작가 ‘흔적’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현재 머물고 있는 세계가 보여주는 경험을 스스로 해석해 보고, 기록하며 살고 있기에.



세포_흔적 첫번째 개인전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2022년 초 아주 신비로운 일이 있었다. 다른 날과 같이 늦은 새벽 침대 위에 누워 노래를 듣고 있었다. 약간의 차가운 공기, 부드러운 이불, 방안을 메운 핸드팬 소리. 잠이 들 듯 정신은 몽롱해지고 머릿속은 음표들의 움직임으로 가득 찬 그 순간, 무의식으로 빨려 들어가듯 온몸에 힘이 풀리고 정체 모를 움직임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마치 영화 필름을 빠르게 되감는 것처럼 강렬하고 강력했다.

이어 들리는 한 음성 소리.

‘너는 누구니?’

이 질문이 뭐라고 한참을 고민하다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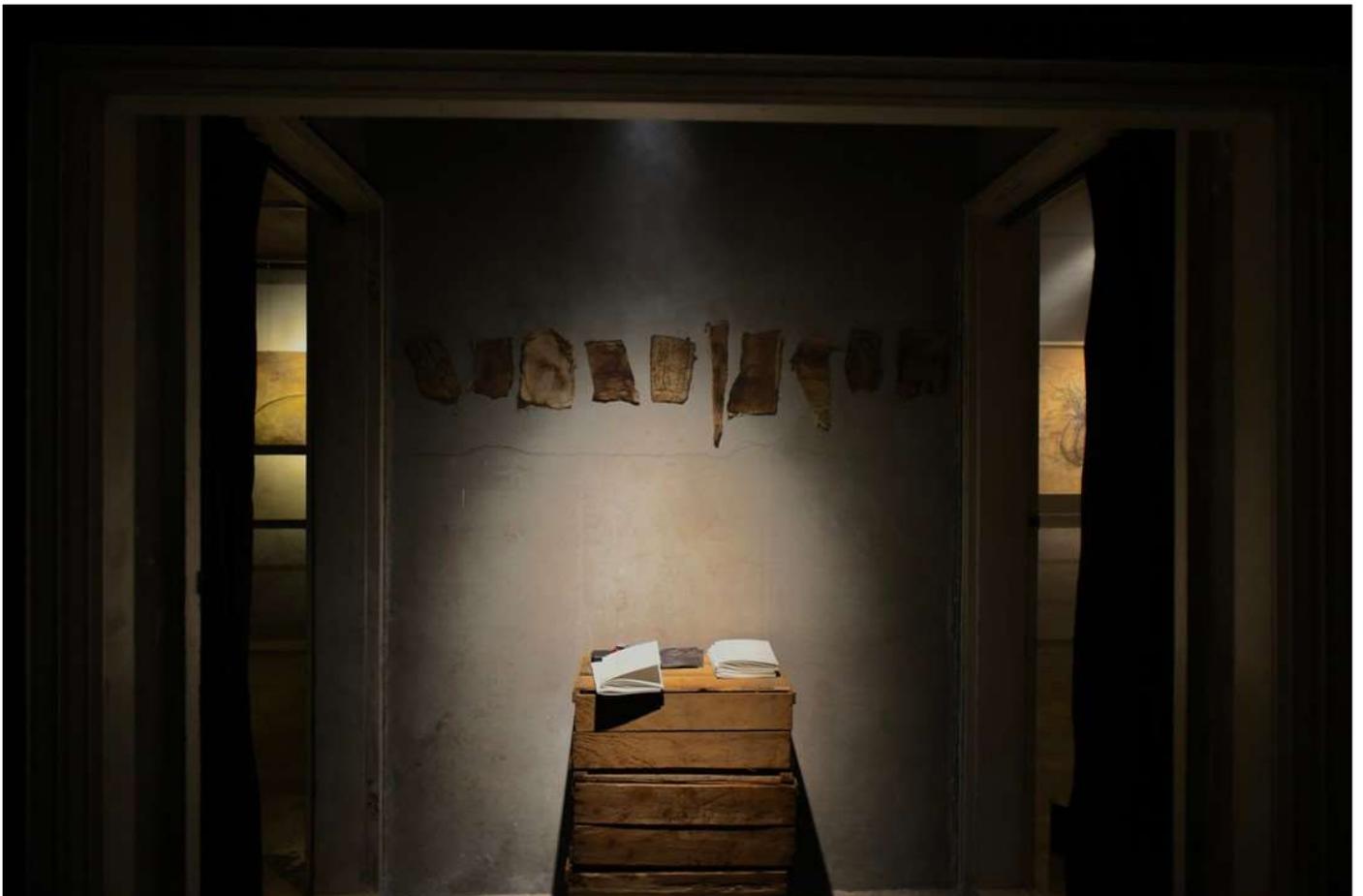
아마 이것은 가상체험에 가깝지 않을까?

모든 허무한 일은 끝을 맺었고, 나는 또 한번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다. 이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2022년의 반절이란 시간이 흘렀다.

내가 경험한 미지의 세계가 결국 데려다준 곳은 스스로의 뿌리,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였다. 아마 이것이 2022 활동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각은 세상에 아름다운 가치들이 우리들의 일상 속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줄 거예요!



박도연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공예 작가 박도연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저는 '흙'이 지닌 그 자체의 물성과 고유성의 매력에 빠져 도자 작업을 하는 박도연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흙으로 집을 짓고, 흙집에 살았고 아직도 흙에 지탱받아 살고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이 '흙'이라는 매개체 속에 녹아들어 그 나라 (지역 / 마을)의 기후와 문화, 인류와 함께 역사를 살아오고, 기억하고, 기록하며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날 도자공예가 어떤 양식으로 예술화되는가 고민하며 마을에서 버려지는 '패각' 자원 요소를 활용하여 도자물성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역 마을 공예적 아카이브’를 주제로 ‘패각재료’ 도자 물성 실험과 함께 작업을 해왔습니다. ‘공예적 아카이브’ 작업은 마을의 일상 속 옛 물건이나 문화재 속 유물로 접하고 있는 모든 오브제를 그 시대적 상황과 기능에 따라 문화성의 가치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패각’ 재료 실험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공생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으로, 아직 꾸준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도자 작업은 도자기 형태, 사용 재료, 번조 온도, 빛깔(색감) 등으로 그 시대적 문화성을 확인하고 분류해요. 도자기는 문화적 요소, 사회적 배경, 종교적 영향 등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했습니다. 목적성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온 거죠. 예술사를 공부해 보면, 작가들은 매시기 그 시대의 중요한 수단을 사용해 작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예’가 광범위한 예술 장르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술의 분야도 기술과 함께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도자 분야도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많기에, 아직도 장르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양한 공예에 대해 배우며 작업 중입니다.

<옹중석: 돌에서 흙으로> 전(展)은 제주 마을의 수호신 '옹중석'이라는 도자 작품을 소재로 기획했어요. 제주인의 삶이 담긴 마을 일상의 물건,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화를 작가의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날의 정체성으로 담아냈습니다.

'옹중석'은 '돌하르방'과 같은 표현이에요. 문헌상의 기록이기에 대중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죠. 그래도, 그리운 감각 속 새로운 발견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옛 일상생활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주마을 공예적 아카이브展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자연 폐기물인 '패각'을 활용해 지역의 점토와 유약을 연구하며, 흙을 예술적 물성 재료로 삼은 '도자 오브제'로 개발했습니다. 또 '기후위기'라는 단어 앞에 우리 예술가는 어떤 태도로 예술할 수 있는가 고민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패각'은 '공예가'를 통해 도자 작품이 되어 가치를 얻고, 마을과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체 재료', '재활용 재료'를 통해 자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이러한 소박한 작업들이 모인다면 공예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문화적 생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시에 참여하며 알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제 예술활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작가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하고, 작업에 고민이 많은 청년 예술가입니다. 어쩌면 청년 예술가에게 전시 활동의 장점은 '결과물'보다 '준비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작업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슬미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로서 알지 못했던 계산원의 마트에서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버려진 영수증에 습관적으로 글과 그림으로 기록을 해두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기쁜 이야기, 반가운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가 마트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트는 참, 지구본 같다는 생각을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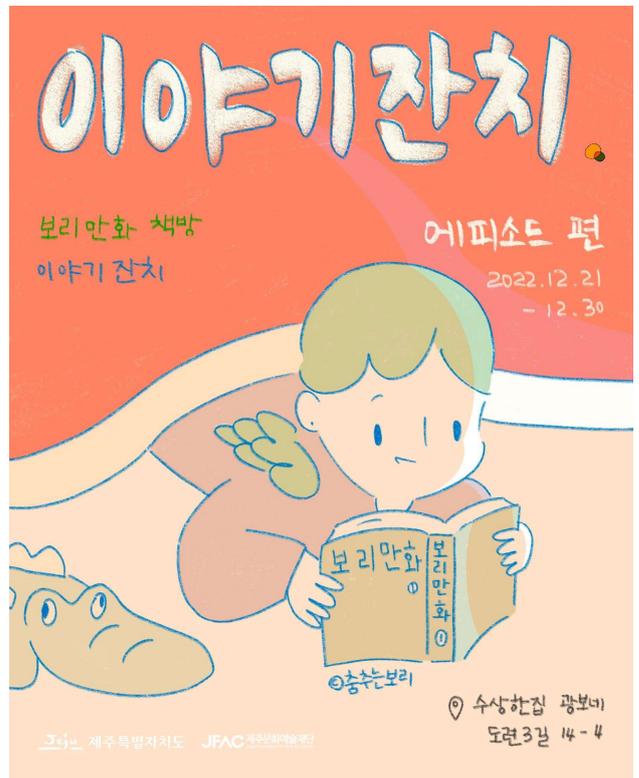
해서 올해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한 마트 계산원들과 소통하며 기록을 에피소드별로 정리하여 만화로 제작했어요! 제작된 만화책자와 일러스트 그림 작업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같이 일한 동료들의 이야기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잔치> 에피소드 편 토크콘서트도 마련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계산원의 일상,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상위에 올려두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어요..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그림 그리는 슬미(보리)입니다!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꼬적 꼬적 낙서하던 때부터 오늘까지, 그림을 그리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살고자 '그림 그리는 슬미(보리)' 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잔치 [마트 계산원 노동자 이야기]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작가로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림 그리는 것 이외의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지원사업 시작 전 면접을 위해 제출할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사업 중에 누군가를 섭외하고 함께 할 때의 의견을 맞추어 나가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지원사업 이후에 정산과 같은 것들 말이지요.

그럼에도 제게는 인상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작업하는 순간도 물론 인상 깊었습니다만, 그림을 그리는 것 이외의 작업들이 제게는 버겁다 느껴졌었는데, 그럼에도 하나씩 수행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아서요. 허허. 앞으로 나의 작업을 기록으로 정리정돈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찾게된 것 같아 기쁘기도 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닌, 참으로 다양한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도구들로 자기표현을 지속해 갈 수 있을까를 올해 마무리를 하며 고민해보고 앞으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많은 표현과 정보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달하는 방법이란 다양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길을 건다가 문득 당신의 표현을 만나게 된다면 참으로 반가울 것입니다.

강지훈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술 교육 사업의 주강사, 보조강사로 활동하면서 꿈이 많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전문적으로 배우면 참 잘할 것 같은 재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계속해, 분명 잘 될 거야”라고 말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 친구들의 열정에 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더 불안하고 마냥 즐겁지도 못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런 제가 확신을 준다는 것이 참,, 모순이더라고요.

‘취미의 확장성에 대한 목표를 갖고 해보자’는 다짐으로 시작한 창작 뮤지컬 아카데미.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고, 그것으로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성에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내부적인 진심들이 중요하단 걸 깨달았어요.

배우로서는 참 많은 공연을 올렸던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 꿈의 무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배우로서 공연을 올렸을 때 참 행복했었어요. 무대의 웅장함이 아닌 객석의 웅장함을 느꼈죠.

그 외로는 기획, 뮤지컬, 광고 촬영, 매체 연기, 연극제, 영상제작 및 촬영 등 더욱 괜찮은 예술가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INTJ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내향적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좋아라 해요. 또, 항상 궁굼한 게 많고(하고자하는 것엔),,,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지속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묻고 답을 내려고 노력한 해 같아요.

뮤지컬 공연을 자기만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콘텐츠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따라오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기획부터 디자인, 창작, 연출, 극작, 안무, 음악, 영상, 무대, 조명, 배우, 관객, 홍보 등 필요한 능력과 재능이 많은 종합 예술이다보니 한 명이 할 수는 없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야 하죠. 이에 따른 인건비가 엄청나구요..제작비는 당연히 높게 측정됩니다. 제주에선 그래서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제주엔,, 무료 공연이 많아서 유료티켓이란 문화 소비에 거부감이 높은 편인 것 같거든요.제작비를 줄이면 줄일 수록 공연 퀄리티는 낮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보는 관객들의 니즈가 충족되지않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주도의 뮤지컬은 공연장이란 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로 시작해 환경과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단순 공연 개념이 아닌 현장에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점차 그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제주도라서 가능한 콘텐츠로 더욱 높이다 보면 사회적 가치도, 전달력도, 매력도, 차별성도, 브랜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언젠가 이 제주도에서 공연을 만드는 사람도 행복해서 웃고 보람 차서 울고, 보는 관객도 즐거워서 웃고, 감동에 울 수 있는 그런 가치와 환경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어, 예술을 도전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지역경쟁력이 예술과 문화로 자리 잡아서 오히려 문화자원이 제주도에 넘쳐났으면 합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참 애쓰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온갖 불안함을 이겨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Zlog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저는 현대분청 작가 고은지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고은지 제가 현대분청 작가로 저를 소개한 이유는, 제가 '분청사기 박지기법'을 사용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청사기 박지기법'은 표면을 긁어내는 행위가 중심이 되는 전통 도자기 기법입니다. 이를 재해석하여 기물 표면을 장식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전통을 현대화하고 재해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화산, 비화산회토로 도예용 유약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말 그대로 제주의 색을 작품에 올곧이 담아내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험기록 작가 이해지입니다.

이해지 저는 라인드로잉을 통해 제주의 일상을 작품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곶길, 함덕리 올레, 여름' 등 제가 경험한 진짜 제주의 모습들을 기물 표면에 그려내어 기록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제주토양자원(화산송이, 화산석 등)으로 만든 안료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도예 작품을 만들고 제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Zlog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에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주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런 연구가 모여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제48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에서 이혜지 작가의 'sensory memory' (감각의 기억)이라는 작품이 대상을 받았고, 고은지 작가는 '바람길' 작품으로 선정작가 상을 받았어요. 저희의 예술성이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시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한해였어요. 양구 백자박물관에서 진행한 <2022 양구백토 천 개의 빛이되다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제주도예가회 21회 정기전 <도예가의6월: 제주 이야기> 전시에도 참여했습니다. 제주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제주도예가들의 작업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었는데, 제주 전통음식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어요. 제주 산지천 갤러리에서 진행한 <2022 아트페스타 인 제주: LOOP(feat. 연결의 시선)>에도 전시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야외에 있는 풍등에 작품을 전시했던 일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2022년 한 해는 정말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처음발표 지원사업을 통해 고은지, 이혜지 2인전 <For: 11월의 크리스마스>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정한 주제는 '누군가를 위한(for)' 입니다. 주제는 두 달 남짓 남은 2022년의 끝에서 '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정하게 되었어요.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는 '잔' 형태의 기물 표면에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제주를 새겨 전시장 곳곳을 채웠습니다.



고은지 이혜지 2인 도예전 [more and more]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저희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며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주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작품에 담아 전시를 해보자는 것이 처음 발표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였어요. 도예가로 활동하면서 아직 대중들에게 낯선 도예를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잔'의 형태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잔 표면에는 제주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한 작가의 흔적들이 하나씩 담겨 있어요.

11월에 전시를 진행했고, 전시주제와 제목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을 11월. 전시를 통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For:11월의 크리스마스>를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며 갖게 되는 설렘을 받는 이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이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이 얼추 마무리되어 갈 때 즈음에는 같은 제주에 살아오면서 각자 바라보고 표현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서로 확연히 달랐던 것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저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며 서로 동지가 되기도 했고 라이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고 받아왔어요. 앞으로도 좋은 작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펼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회 초년생 청년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예술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많으니 자신에게 꼭 맞는 지원사업들을 잘 찾아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지원사업을 통해 한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적극 추천 합니다.



문한슬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촬영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제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촬영 동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질문하는 저도, 대답하는 가족들도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룰이 여러 번 끊겼어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문득 '카메라를 구석에 세워 놓고 앵글 안으로 들어가서 인터뷰이와 직접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하는 편이 서로에게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화면 안에 들어가보니, 확실히 찍히는 사람의 긴장과 부담이 느껴지긴 했지만,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니 어느 순간에는 카메라를 덜 의식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착오를 반복해가며 자잘한 요령을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의 두 번째 활동은 '일본어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희 할머니는 일본에 사신 지 50년이 넘으셨어요. 일본어를 모르는 채로 넘어가셨지만 현재는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하시죠. 저와통화할 때는 옛 제주어를 하시는데, 대화가 막힐때면 다시 일본어를 쓰세요. ㅎㅎ 이렇게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니, 할머니가 일본에 갔을 때와비슷한 나이에 '모르는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나마 느껴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고, 책 두 권의 과정까지 혼자 마쳤어요. 여전히 일본어 회화를 구사할 수는 없지만 전혀 익숙지 않던언어가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는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마치 저와 할머니의 관계처럼 서서히요.

올해의 마지막 활동은 '영화제 활동'입니다.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 작업을 장편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을 다양한 경로로 모색했어요. 제작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기관에 장편 구성안을 제출했고,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피칭 프로젝트'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피치앤캐치'에서는 본선에 진출해 작업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회의감과 작업의 방향성, 확장성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현업에 있는 다른 감독님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조언을 받았던 한해였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내향적인.. 직관적인..
사고형.. 인식형..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사실 스스로를 잘 모르기도 하고 적합한 단어를 찾지도 못해서 mbti 테스트의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mbti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찾아보니 이렇다네요.

I - 선호하는 세계: 내면 세계
N - 인식형태: 실제 너머로 인식
T - 사실과 진실 위주
P - 즉흥적인 생활

올가 토카르추크의 『낮의 집, 밤의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마르타에게 그녀 자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물었다. 잘난 척하던 그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해 내는 거거든.”

이 구절로 저를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작업의 레이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넣고 또 버릴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조금씩 넣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일기를 쓰는 것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정말 못 버리겠는, 이것만은 가져가고 싶은 축을 조금 추려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주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예요. 지역을 벗어나려면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웬만해선 잘 이주하지 않는 분위기가, 제게는 어려웠어요.

대학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타지역에 사는 명분을 탄탄히 해야 할 부담이 없었던 적은 없었고, 그것이 제주가 더욱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보니 이 작업이 단지 ‘가족’이라는 카테고리만 정의되긴 어렵다고 느꼈어요. 나와 내 가족의 배경에 제주가 있는 한, 지역적인 정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더라고요.

다만 다양한 종류의 ‘제주인 정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고, 제 경우인 ‘이주하고 싶은, 탈주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제주인이어서, 혹은 2022년을 지내고 있는 제주인 20대라서, 가질 수 있는 정서가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인사이트이자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신 할망이라 생각허라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그.. 동시대.. 예술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없지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
을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해요.

뭔가 만들어내고 싶을 때, 거창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머리에 힘을 줘야
하더군요.

저는 스스로를 응원할 때 이효리 님이 어
느 방송에서 아이에게 하신 말씀을 종종
떠올려요.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그냥 아무나 됩시다.

단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기.



김승민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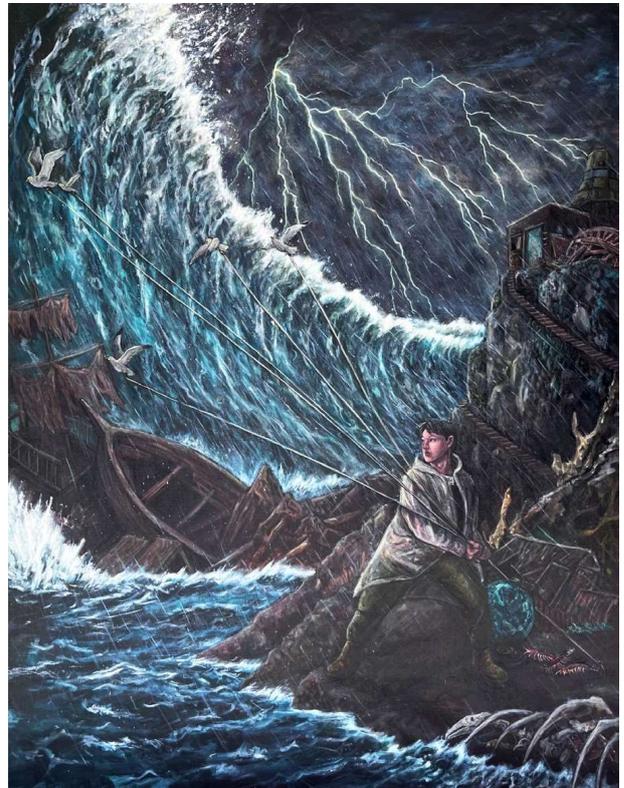
올해는 개인전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문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소재를 얻고, 다양한 강의와 작가 인터뷰를 들으며 작가에게 필요한 태도 등을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한 1년이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 어떻게 공부를 이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는데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연습했던 1년이었네요. 그러다보니 작업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품는 작품들을 만들었다면, 좀 더 원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법과 재료, 작업관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회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와 브러시를 이용해 두터운 마띠에르와 굵직한 자국들을 동반함으로써 회화를 그리는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몸짓이 반영된 붓질은 재현된 대상이 화가가 창조한 것임을 알게하고, 캔버스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인물들이 펼치는 서사는 자기치유를 위한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점차 거친 화면을 연구했어요.

그렇게 제작된 올해의 신작 중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모아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빈공간에서 개인전<우연히 마주한 불길의 우리의 눈을 멀게할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21점의 페인팅이 걸릴 거예요.

2인전으로는 김지훈작가와 비오토피아에서 <클라인의 병>, 김강훈 작가와 스튜디오 126에서 <파도앞에선 모두가 방랑자였다>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단체전으로는 산지천 갤러리에서 <봉인된 풍경>, <제주미술제>, 제원빌딩에서 <숨비소리>, 롯데시티호텔에서 <아트제주 특별전>을 진행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재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한 결과를 페인팅으로 옮기는 사람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코로나19는 동시대 인류의 삶의 패러다임마저 바꾼 세계사적인 재난입니다.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미디어는 기후재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끔찍한 사건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포르노처럼 쏟아지는 고통스러운 예견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난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과거부터 미술이 해오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재난 앞에서 인간들은 과연 어떤 행동양식을 보이는지에 대한 상상들을 나열해보며 현실의 나는 그러한 재앙을 극복해나갈 수 있으리라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1년동안 작업실에 고립되어 나와 작품 둘이서만 대면하는 상황을 겪다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겨를이 없습니다. 아마 세상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를 것입니다.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나의 열달 간의 보고서를 믿어주고 지원하고 응원해주었습니다. 실제 결과물은 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덕분에 저는 1년의 시간동안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2월에 있을 제 개인전은 온전히 이번 지원사업 덕일 것입니다. 1년 동안 육성지원을 받으며 나의 회화가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그림을 보면 많은 이들이 너무 어두운 그림이라 부담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그림이 치유의 과정에 닿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 앞에서는 모두가 방랑자였다]

이번에,, 작품 제작에 몰두할 때면, 페인팅이라는 행위가 어떠한 의식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화가의 붓질은 어떤 형태를 만들든 간에 궤적을 남기고 이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붓터치는 반복해서 중첩되며 세상을 재창조하고 싶은 화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평면이라는 한계로 인해 화면 안에서의 세상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 못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세상은 관람자로 하여금 현실과 거리를 만들고 역설적으로 화면에 몰입하게끔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다소 어두운 세상을 그리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체험으로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작가 자신의 자가치유를 넘어 관람자로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설득력을 점차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세계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도 많은 요즘입니다. 1인 미디어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비극은 더욱 적나라하게 자신을 퍼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술가의 작품으로 하여금 잠시 삶에서 떨어져 나가 예술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기쁨입니다. 창작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람자로서 동시대의 예술하는 분들 덕에 삶이 조금이나마 풍성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영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제는 ‘망각’으로 잡고, 모든 사회문제 혹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망각으로 시작한다는 콘셉트로 예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속에서 잊혀가는 나의 어린 시절을 조명했어요. 이와 관련된 작품을 창작했고, 이 작품의 낭독회를 열어 관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표현한 부분을 관객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허나 이런 상상은 위험할 때가 있죠. 관객들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한 연출가는 이 작품을 연출해보고 싶다면 연락을 주었어요. 그렇게 실제 공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면서 잊혀가는 물건이나 이야기들을 조명하는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런 작품을 창작해보고 싶었는데, 실제 그런 소재로 한 작품에서 캐스팅 제의가 들어와 함께 작품을 만들었어요. 국립국악원 창고에 있는 ‘건고’라는 악기는 이제 악보가 없어서 연주할 수 없는 악기입니다. 그 악기에 대한 이야기와 잊혀가는 제주 호랑이 설화를 가지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가족극으로 창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기와 설화를 알릴 수 있도록 했어요.

마지막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나는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 즉흥적인 공연 한 편을 창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좋았던 추억에서 잊고 있던, 잊고 싶었던 추억들도 생각이 나면서 이 부분들은 ‘왜 잊혔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키워드까지 가게 되죠. 나의 고향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자연물(돌, 모래 등)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시는 할머니의 인터뷰, 그리고 나의 첫 죽음에 대한 이미지 등.. 이 모든 이야기들을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꾸몄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틀 안에 갇혀버린 현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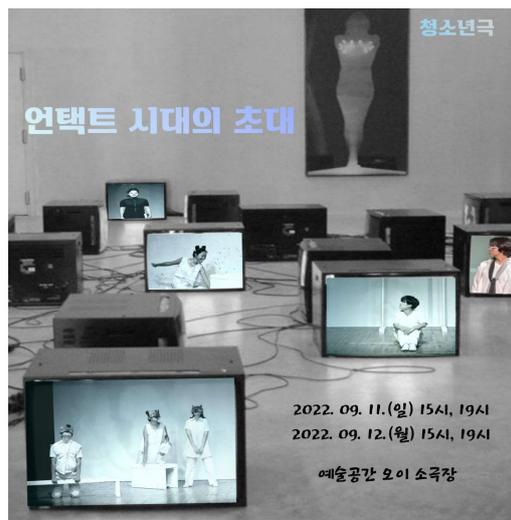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이번 기회(2022년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사업)에는 의도적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모든 생각을 다 그 안에서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잘 닦아놓은 아스팔트 같은 길을 가다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 틀의 늪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길을 잃었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 여행이 계속되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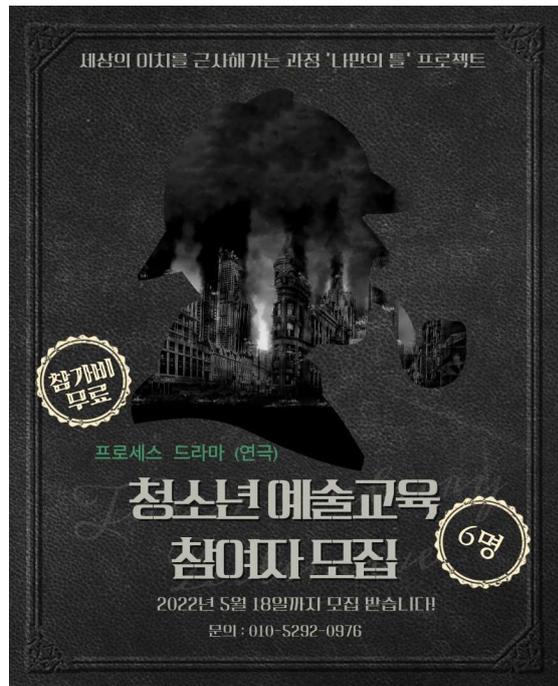
올해 저는 많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배우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상태가 어떠니?” 배우들은 말합니다.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 생각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했고, 갈릴레오는 이 의자는 등속직선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이 의자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뉴턴이야.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사람들인데. 과학도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에서 가만히 있는 의자를 보고 갈릴레오는 뉴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말했어요. 연기에 꼭 필요한 시선 중 하나가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근사(近似)해가는 과정 '나만의 틀' 프로젝트

'나만의 틀 프로젝트'는 이런 저의 두루
뭉술한 생각이 현실에 태어날 수 있게 해
주고,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후
배들에게 말하는 중입니다. 저는 세상 모
든 일에 답은 하나라고 정의 내려도 괜찮
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수많은 세상
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 안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크고, 알아
야 할 것이 너무 많다보니, 수학은 그리고
물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죠. 그렇게
사물의 이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연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 주제로 많은 토론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작
은 틀 안에서 허우적대며 잘 놀았던 1년
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부분
과 알지 못한 부분들, 더 알고 싶은 부분
들이 남았습니다. 아직 제 프로젝트는 끝
이 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사업을 통
해 시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
에게 많은 자극과 응원이 된 시간들이었
죠.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해주고.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우연히 한 행사를 기획하면서 제주 청
년예술가 한 분을 초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참
여하고 있는 사업인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사업 합격자 명단을 둘러봤어요.
즉흥적으로 한 분에게 연락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분은 흔쾌
히 수락해주셨고, 꽤 괜찮은 행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
로 서로를 잘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고민
하고 해결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이연화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청소년 장편소설 '너의 서울, 나의 제주'의 집필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엔 연작소설의 형태로 출발했는데 뭔가 글이 하나의 주제로 섞이지 않고 겹돈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주인공을 두 명으로 잡고 일기글이 교차되는 형식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시골에서 자신이 썩고 있다며 제주를 벗어나고 싶은 여고생 딸과 도시가 너를 망칠거라며 제주살이를 고집하는 엄마의 갈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다 딸은 지금의 자신과 나이가 같은 17살의 엄마의 일기를 발견해 읽게 됩니다. 그 속에서 딸은 미처 알지 못했던 엄마의 10대 시절의 아픔을 알게 되고 엄마가 제주에 집착하는 이유, 서울을 증오했던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주의 아이들은 왜 제주를 벗어나고 싶어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많은 인터뷰를 진행 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는 죄가 없다!'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제주냐...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가족, 부모와의 소통에서 만들어지는 안정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가 만난 제주의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주를 벗어나고 싶다고 보다는 집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더 큼니다. 제주로 이주해온 서울 사람들 역시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는 대도시 환경에서 느끼는 단절감에 더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뺏속까지 서울사람이자 제주살이 5년차 작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두 도시, 서울과 제주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담을 수 있어서 무척 보람된 작업이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엄마 작가, 이연화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올 한 해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쓰면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깊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초보 엄마여서 작품 속 엄마들의 어긋난 모정을 담아 낼 때 가슴이 아팠어요. 나의 엄마, 그리고 엄마인 나, 엄마의 엄마까지... ‘엄마’라는 호칭은 같지만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할 때마다, 저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해 치열하게 써내려갔지만 그 기간 동안 제 아이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야 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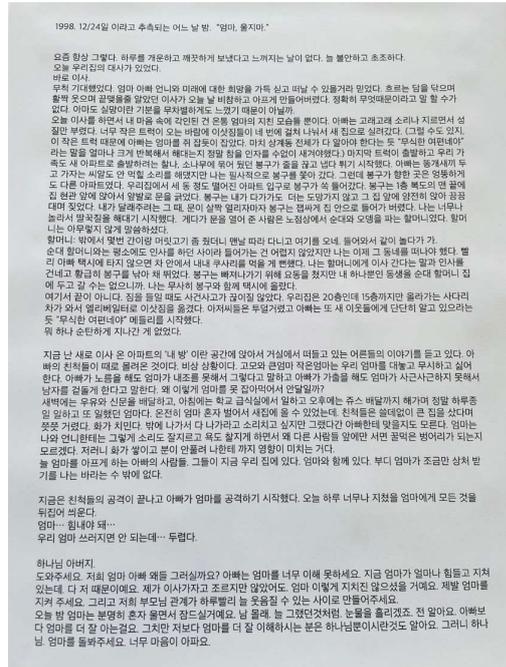
올 한 해 ‘작가’ 이연화로 소설의 꿈을 이뤘으니 이제는 잠시 ‘엄마’ 이연화로 돌아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엄마’와 ‘작가’라는 각각의 자리가 일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멋진 ‘엄마 작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기 전에도 나름 ‘글밥’을 먹고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은 글쓰기에 임하는 저의 각오와 습관까지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글을 완성한 후 돈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번 지원사업에서 저는 아직 글을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매달 지원금을 받았습시다. 물론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이런 지원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달이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더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는 의욕이 쌓였고 경제적인 안정이 받쳐주니 무리해서 노동하지 않으며 집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저는 소설을 쓰기 전에도 나름 ‘글밥’을 먹고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글쓰기에 임하는 저의 각오와 습관까지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글을 완성한 후 돈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번 지원사업에서 저는 아직 글을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매달 지원금을 받았습시다. 물론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이런 지원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달이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더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는 의욕이 쌓였고 경제적인 안정이 받쳐주니 무리해서 노동하지 않으며 집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에게 이런 형태의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을 넘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응원을 보내주는 것만 같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그토록 쓰려했지만 쓰지 못했던 이야기를 드디어, 제주에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이 다방면으로 확대되어야 청년 예술가들이 제주에서 꿈을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저는 또 다른 작품의 집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경제적 지원은 종료됐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 덕분에 느낀 그 보이지 않는 응원의 힘은 오랫동안 소중히 지니고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연작소설 <너는 서울특별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 >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청년’의 막차를 탄 예술가로서 이제 막 ‘청년’이 된 예술가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치열함보다는 여유와 낭만과 같은 감성에 몰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예술가라면 고난과 치열함의 정서를 외면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보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우리 모두 더 멋진 예술가가 될 수 있기를!



이소희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다-이소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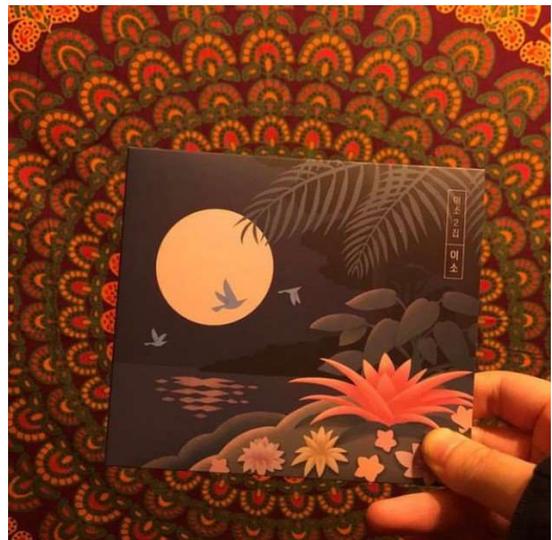
혼자 곡을 쓰며 활동할 땐 싱어송라이터 이소 (싱어송나이소), 밴드 듀오이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할 땐 베이스 최근에 낸 이소 2집 앨범명 [이소] 관객분들 청취자분들 노래 들으러 어서오이소

모두 합치면 마치 국민가게 다-이소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2년 10월 22일에 이소 2집 [이소]를 발매했습니다. 이소는 저의 활동명이기도 하고, 사전적 의미로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자란 나를 어린 새로 표현하여 노래로 만들었고 총 10곡이 실려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올해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의 작가로 함께 선정됐던 예술공간오이의 현대영님께서 연락이 와서 협업 공연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행사에 초대받아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저를 알게 되었다는 말 하나로 이 사업을 하길 참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다른분야의 예술인이 서로를 알게 되어 협업하게 된 것 자체가 신기하고, 또 좋은 취지의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참여하며 정규 2집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원사업 없이도 음반을 낼 수 있지만, 적당한 데드라인과 현실적인 지원은 음악가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동시에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번 앨범엔 '섬', '나', '외로움' 등을 담았습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했어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면 부디 제 음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제주에는 멋진 예술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혼자 활동을 오래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릅니다. 다양한 멋진 예술가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함께 작품을 듣고 보고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협업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오다가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곽고을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 예술 활동 지원사업 문학 부문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기획해왔던 “한라산신화”를 그래픽 노블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은 처음이다 보니 공부도 필요했고, 작업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알찬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틈만 나면 책상에 앉아 작품에 들어갈 삽화를 그리고, 이야기를 추가하고, 장면을 배치합니다. 또한 출판사와 회의를 하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 작업에 집중합니다.

드디어 작업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자 책을 완성하기 위해 거쳐 간 많은 작업이 하나같이 즐거운 추억들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눈뜨면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정말이지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2022년은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대선을 지나 전쟁이 발발하고, 큰 홍수에 이태원 참사까지 계속되는 시련들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가 반영된 건지, 제 작품은 1947년 4.3 사건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온갖 재난들로 흥흥했던 그 시기에 자신이 만든 땅 제주의 평화를 꿈꾸고 답을 찾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난 설문대의 여정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단하고 어두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격한 분쟁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극복하지 못할 게 없겠죠. 그래서 하늘처럼 큰 모성을 가졌던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단비를 내리고 싶다는 염원을 자연스레 작품에 담았습니다.

모든 분쟁의 해법은 오직 사랑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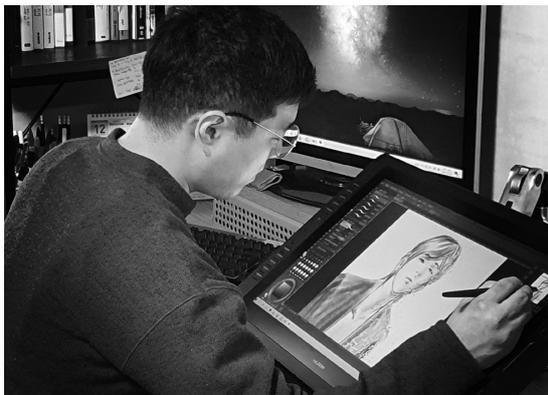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이야기 사냥꾼 광고을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이야기 사냥꾼, 광고을입니다. 역사나 자연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반복되는 일상에 새롭고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인류의 문화와 역사가 가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수없이 마주해요. 생경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는 독특한 토속신앙과 구전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 한 민족이 살아온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로 돌아가 그 순간을 상상하는 여행을 즐긴답니다.

익숙했던 서울을 떠나 제주에 자리를 잡고, 도시에서는 만날 수 없던 제주 창조신 설문대의 토속신앙 이야기와 구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어머니로서 제주를 만들고 제주 사람을 굽어살피는 설문대. 저는 그녀의 거대한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해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험하고 높은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 드디어 한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섬 제주의 중심. 그곳에 우뚝 솟은 궁전 같은 백록담이 떠오릅니다. “이야기 책: 한라 산신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이번 작업을 마무리 지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작업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멀기만 해 보였던 작품의 가치를 뚜렷하게 확인시켜주었고, 막연한 꿈 같아 보였던 작업을 거침없이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술인에게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가늠좌란 자신의 작업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는지 여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현실에 부딪혀 자신의 꿈에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예술인의 처참한 심정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의 완벽한 종결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픽션이란 장르 안에서 적지 않은 시도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조금 나아가다 방향성을 잃고 목적이 사라져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 한 세계와 온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이별하는 일을 경험해보니 온 힘을 쏟아가며 품었던 열정과 사랑이 결국 작품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설문대와 백록. 그들과 함께했던 2년의 시간은 마치 꿈같이 스쳐 갔지만, 그렇기에 정말 후련했고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도도 좋은 결말이라는 종착점 없이는 모두 의미 없는 결가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몸소 느끼고 나서야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 막연한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출간, 첫 작품이라는 초조함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그라들었고, 다음 작품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첫 삽을 뜨던 얼마 전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두려움 없이 작품의 여정을 이어갈 용기를 얻게 된 2022년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신의 궁전: 한라산 신화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 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예술인의 모든 작품이 그러하듯, 이번 작품에서 꼭 표현하고 싶었던 코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빛’의 코드인데요. 빛은 세상을 따듯하게 비추기도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현대 사회가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듯 수천 년 전 성경의 “십계” 또한 빛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빛은 우리를 이끄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세상에 이런 ‘빛’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정한 공감과 소통을 위한 마음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작품’ 아닐까요? 오늘도 묵묵히 작품을 빚어내고 계신 예술인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믿고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언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는 두 개의 공연을 진행했어요.
먼저 거리극 <부재의 존재>인데요.
이 작품은 사운드 씨어터, 이동형, 참여형 등의 형식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간반응형 공연이고, 매회당 1명의 관객만 참여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이에요. 관객은 도시의 한 장소에 앉아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사운드를 통해 존재하는 낯선 사람과(실존하지는 않는) 어떤 종류의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이후, 먼저 자리를 떠나는 사운드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객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도시를 낯설게 여행하고, 최종 장소에 도착하여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부재와 존재의 개념에 대해 감각하고, 사유하는 시간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총 45회의 공연을 진행하며 45명의 관객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이동형 거리극 <눈 뜬 자들의 도시> 입니다. 이 작업 역시 매회당 1명의 관객이 참여하는 1인 관객 공연이었어요. 관객에게 눈을 가리고 인도자와 함께 도시를 여행할 것을 제안한 작업입니다. 시각이 제한된 관객이 다른 감각을 통해 익숙했던 도시를 낯설게 감각하고, 처음 만나는 인도자와 함께 도시를 자유롭게 산책하는 시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적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길 바라며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총 20회의 공연을 진행하며 20명의 관객을 만났어요.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거리예술가 이상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거리에서/거리로부터/거리를 주제로 기억과 시간, 공간과 감각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고정된 장르와 표현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아이디어별 그에 적합한 형식과 창작론을 실험하며 작품을 만듭니다. 연출가, 창작자로서 공연(극, 퍼포먼스 등)의 형태로 관객들을 만나며 ‘장소(공간)’, ‘관객’, ‘작품’ 3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미학을 탐구하고 있어요. 거리가 단순히 거리(street)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적/공적공간(public space)을 포괄한다고 바라보고, ‘거리는 누구의 것인가? 거리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공연' 시리즈

<부재의 존재>

<눈 뜬 자들의 도시>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올해 공연의 경험과 공연에 참여했던 관객들의 피드백을 거치며 '1인 관객'이라는 포맷이 저의 작업에서 지닐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①공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도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그 도시에 존재하며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에게는 '현실'과 '극'이 혼합된 제3의 세계가 발생하는 것 ②작업자/작품, 관객 사이에 형성되는 보다 내밀한 관계 ③'일상적으로 작동하는 도시의 시공간'이라는 조건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공연 형식 등이 지닌 미학적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처음 '1인 관객' 공연은 '관객이 없는 작업은 예술인가?'라는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로 내렸고, '그렇다면 한 명을 위한 작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상상이 뒤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 무조건 '1인 관객' 공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1인 관객이라는 포맷을 실험하며 가져온 것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다른 형식과 표현방식으로 공유하는 경험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선명해졌어요.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살아냅시다.

최재령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의 주요활동은 12월에 열릴 개인전입니다. 주로 회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개인전에는 연속되는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건이 녹록지 않아 작품 제작도 어려움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제주예찬'이라는 주제로 제주로 이주하여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과 함께 단체전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주도로 이주한 작가가 바라본 이주민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방향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었어요. 기존의 잔상을 표현한 작업과 함께 제주에서 즐겁게 보았던 장면들, 제주로 와서 살고 있는 지인들을 총망라하여 보여주는 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잔상(After image)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미디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회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간 장면을 포착하여 잔상을 표현하려 합니다. 주로 영화나 영상 이미지로 작업하지만 일상 이미지로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창작공간 대피소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올해는 유독 그림도 안 그려지고, 그린 그림 수도 적어 공모전을 지원하기도 어려웠던,, 그래서 선정도 잘 되지 않던 해였어요. 그래도 나만 힘든 상황이 아니니 계속 지원해보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작업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차료 지원을 받아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힘들어도 갈 작업실이 있고, 가서 해야만 하는 그림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그리고 오롯이 내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혼자 있을 만한 공간이 있다는 것에 작가로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맡고자 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안 좋은 날이 계속되니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그만 두고 싶은 마음 뿐이었지만 그래도 결국 맞이하게 될 좋은 날을 위해, 또 서로 노력하고 묵묵히 해 내길 바랍니다.

현상원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체적인 연습실을 얻어 창작활동을 진행한 점이 올해의 가장 큰 변화이자 사건이었어요. 공간이 생기니 이를 기점으로 여러 팀이 모여 협업과 자유로운 토의를 할 수 있었고, 공연 기획을 하기도 수월해져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합주공간이 부족할 때에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었고 이 역시 뿌듯한 성과였다고 생각해요.

올해 직접 기획한 공연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한번도 공연해보지 못한 장소에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각 공간의 환경에 맞춰 콘셉트를 정하고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이 나름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공연자와 공연장 관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 특히 좋았습니다. 내년엔 공연할 때에는 올해에 부족했던 점을 잘 피드백해서 더 좋은 질의 공연을 만들도록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제주를 무대로 밴드묘한에서 노래하는 현상원이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밴드음악이 좋아서 시작했고 밴드의 음악색을 계속 지켜 나가며 활동하려 노력하는 팀입니다. 지금까지 ep 2개, 싱글 앨범 1개, 정규 앨범 1개를 발표했고, 최근에는 ep 1개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밴드를 운영하며 공연까지 이어지는데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자체에 흥미를 느껴 밴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어요.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나고 자란 제주도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활동을 이어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주로부터 영향을 받은 곡들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밴드씬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 부산 공연을 갔을 때에도 밴드팀이 많이 없어 공연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하니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주도만의 밴드씬을 만들어 힘을 합친다면 이 흐름을 아예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늦추는 효과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딘가에서 홀로 활동하고 있는 팀이 있다면 그들과 연합해 공연을 해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 보려 해요. 그렇게 해 나간다면 제주 밴드 생태계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예술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연을 다녀보면 각지에도 특별한 개성을 가진 팀이 많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자신만의 것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 개성을 키우다 보면 지역적 특색이 곧 메인 스펙트럼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음악 전공자도 아니었지만 꾸준히 버티다 보니 앨범도 내고, 공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 모두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정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선 넘는 놀이단, 선 넘는 놀이터

<선 넘는 놀이단> 어린이 친구 9명, 놀이기획자들과 함께 8회기의 놀이 워크숍을 통해 놀잇감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했어요. 이를 통해 팝업놀이터인 <선 넘는 놀이터>를 10월에 열었습니다. 놀이 주체인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생각하고, 좀 더 많은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궁리할 수 있게 유도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만의 재기발랄한 놀잇감과 놀이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팝업놀이터를 통해 미취학 아동부터 어린이들까지 즐겁게 놀 수 있는 지역의 작은 축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선 넘는 놀이단>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의 생각과 발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보냈네요.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반반-하이픈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2021년부터 사용하게 된 작업실 공간 이름이자,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너와 나, 반반의 연결” <반반-하이픈>은 각각의 ‘반()반’. 그리고 문장연결부호인 ‘하이픈(-)’을 넣어 만든 이름이에요. 각자의 반()이 만나 연결되어

서로 살리는 삶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관계,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가 담겨 있어요.

놀이축제 《심심》 협업 전시《공쥐파치》 개인전 《상쾌한 관계》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PLAY-WORK

: 놀이(play)과 일(work) 속으로

매년 어린이 놀이 축제를(팝업놀이터)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는 무얼지,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에는 무엇이 있을까.’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에 대한 답 중 하나는 ‘지역자원을 사용해야겠다’였습니다. 그렇게, 빌려서 사용하거나(대여), 있는 것, 버려지는 것들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시도하게 됐죠.

한정한 지역이 제주여서였을까요. 놀잇감(놀이도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도시에서보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자원들이요. 중산간지역을 가거나, 바닷가 마을을 가거나 그 지역마다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일상, 일. 골컨테이너 박스, 그물 부표, 태왁, 곤포, 고무 통 등. 일(work)의 도구가 놀이(play)도구가 되는 그런 전환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또, 제주 자연이 주는 기운과 에너지. 역새, 아릅드리 나무, 바람, 돌, 하늘,, 대자연의 매력과 지역의 자원들은 새로운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자극을 주었어요. 그리고 놀이워크숍을 통해 놀이 주체인 어린이들과 협업하면서 놀이작업의 즐거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 알아가는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로베르 필리우) 일상의 삶을 기분 좋게, 그리고 흥미롭게 발견하고 감각을 일깨우는 삶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근 4년간 제주 지역 안에서의 활동은 무뎠던 감각들, 또는 낯선 감각들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의 삶의 뿌리를 기반으로 한 작업. 삶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작업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결자, 매개자로서의 역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각자의 작업들은 어떠한지 궁금해집니다.

서민우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락방 공간을 활용한 [집극장 다락]은 연극인들이 사는 공간이자 창작공간이고 함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희곡 낭독회

2021년에 이어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희곡낭독회를 가졌습니다. <산불>, <우리읍내>, <보이체크>, 체홉단편, <사천의 선인>, <12인의 성난 사람들>, <동물농장>을 희곡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희곡으로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연극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연극인들이 모여 작품 속 인물이 되어보는 경험이 흥미로운 것은 물론이고, 창작자로서 창작할 작품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낭독공연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성인이 함께 모여 낭독극 <우리읍내>를 공연했습니다. 한 작품을 1회 낭독으로 그쳤던 낭독회와 달리 Zoom으로 만나 연습을 하고, 3회의 오프라인 연습을 거쳐 공연을 완성했죠. 그간 희곡 낭독회에 참여했던 참가자들과 새로운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1년의 낭독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SNS라이브 영상 송출로, 많은 관객을 수용하기 어려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를 해보기도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타 공연 창작 및 제작소

1년간 연극공동체 다움의 공연 연습 및 작품 제작 공간으로 운영되었어요! 6월에 공연된 ‘세여자 이야기’의 창작 공간으로 또, 시극 창작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존재하는 배우 서민우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무대 위에서 ‘존재’ 하고자 합니다. 삶과 연극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여기며, 삶에서도 또 무대에서도 진실되게 존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인간이 되기를.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희곡 읽기 모임인 ‘희곡 낭독회’를 2번째 진행하다 보니, 지속해서 참석하는 참가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거창한 공연을 보거나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가능성을 가진 작은 활동부터 부담없이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이 ‘예술과 연극이 가지는 놀이성’을 더욱 증폭시킴을 느꼈습니다. 함께 모여 정말로 ‘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장르 내에서, 혹은 장르를 넘어선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연극이라는 공동체 예술을 하면서, 또 제주 ‘섬’이라는 지역의 한계에 속에서,, 협업할 공동의 작업자가 늘 부족하고 절실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작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공간의 한계가 현재도 분명히 있지만, 예술가의 창작을 위한 안정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집극장다락은 특히 예술가로서 진입하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이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시도하고 시험해보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극 창작을 위한 내부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시극을 만들었어요. 또, 낭독회/낭독극 공연은 연극에 기반을 둔 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많은 지역주민의 예술활동이 되었죠. 진입 장벽도 낮아졌어요. 이 결과들엔, 공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예술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관객으로 마주했을 일반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관객들의 생각을 더 많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펼치고, 공연 장르에만 한정하더라도 많은 작품이 공연되는데요. 일반인분들은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해서 ‘제주에는 공연이 많지 않다. 극단이 없다. 연극을 어디서 공연하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폭넓은 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가은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비 언어적 감정을 전달하는 <unlangued love>를 제작했습니다. 화면 속 동물의 움직임을 통해 언어로 채 전달되지 않는 감정과 대화를 전달했어요. 캡션 없는 영상을 통해 비언어적 전달이라는 주제의 극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영상매체의 특성인 화면과 소리로 관객이 직접 영상의 내용을 추론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업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로잉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확장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정적인 드로잉과 가변적인 영상매체가 결합된 실험 애니메이션 장르에 닿을 수 있었어요. 매체의 확장을 통해 작품의 전달을 보다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험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작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 저에게 정말 큰 의미로 와 닿았어요. 앞으로도 꾸준한 작업을 통해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실험 애니메이션 작가 이가은(이현세)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이현세라는 작가명으로, 시각예술 중심의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최근 관심있게 작업하는 주제는 실험 애니메이션 영상 작업입니다.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화면 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화와 드로잉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시각 매체인 애니메이션 영상매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동물의 움직임 등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시각적 즐거움과 감정적 요소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업하는 키워드는 패션, 감정, 동물, 이미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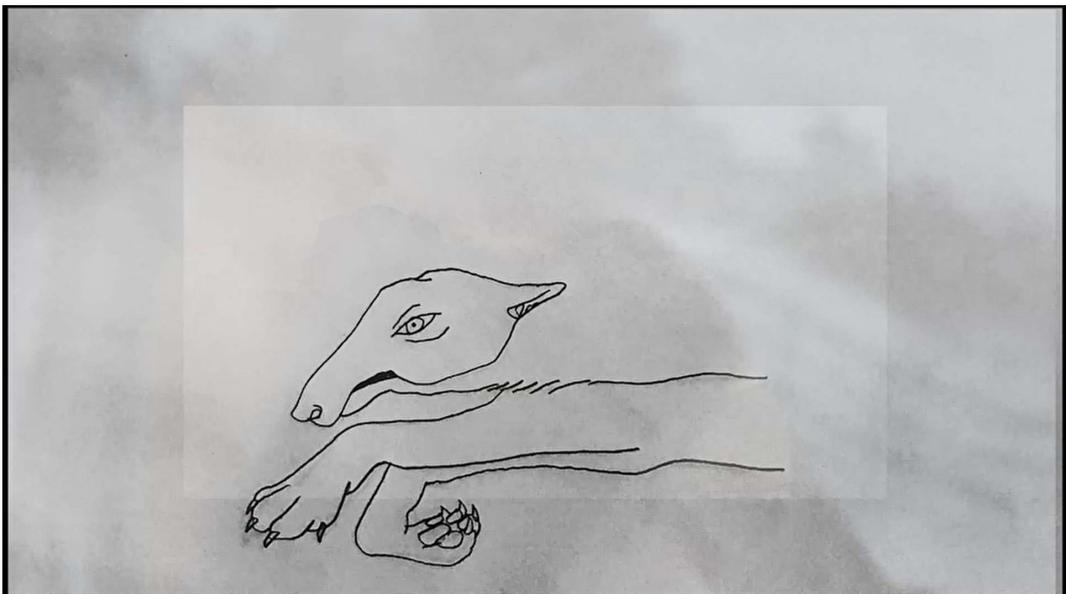
애니메이션 실험영상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제 작업스타일 전반에 관해 탐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드로잉만으로 닿을 수 없는 한계를 인식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매체로의 확장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는 저에게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작업의 기반이 되는 드로잉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영상매체의 탐구는 이번 청년 준비, 땅 지원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려 합니다.

두 번째로, 작품의 소통에 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아쉽게 전시를 열지 못했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작업매체인 영상매체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제 작품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개인작업에서 그치지 않고 전시나 공모전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꾸준한 작업을 통해 전시와 이를 통한 소통에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대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작업합시다!



이계나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름의 한복판인 8월엔 2022 국제해양예술제 IOAF에 참여했어요. 겨울의 시작점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주청년의 초상: Portrait Of Jeju Youth』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12월인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요!) 저의 자화상이 포함된 이 전시가 가장 뜻깊은 올해의 활동인 것 같네요!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제주의 무교 신앙을 세계로 전파하는 화가 이계나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2021년 제주의 큰곳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르침이었던 '무교'는 일제 식민 통치 시절 '무당의 저질스러운 풍속'을 뜻하는 '무속'으로 치부되었죠. 그러나 무교는 모든 종류의 신령을 모실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포용력이 넓습니다. 특히 제주에서의 무교는 단순히 무당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종교에 국한되지 않아요. 수난의 역사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제주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문화를 꽃피워낸 근간입니다. 화가 이계나는 제주 무교의 정신을 첫 회화전의 원천으로 삼아 굿, 심방, 제주의 영험하고 신비로운 순간들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무도(그림 발표회)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저의 첫 회화전 《무도》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인 제주에서 화가로 데뷔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과 고향제주의 모태를 표현하는 제가 전업 작가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 그리고 이 기회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얻게 된 것도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제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림은 매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수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천혜의 자연을 지켜온 제주민들의 생명력은 저에게는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런 '제주의 생명력'은 제가 예술가로 데뷔하고 꿈을 펼치는 큰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전시 공간인 구좌 김녕리는 제게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김녕은 제주의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서순실 심방님의 본입입니다. 심방님은 이번 저의 '무도' 전시의 하이라이트예요. 저는 심방님을 찾아뵙고 제주의 무속신앙과 심방님의 초상화를 화폭에 담고 싶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심방님은 저의 마음을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김녕이 당신을 길러냈다고 말씀하시며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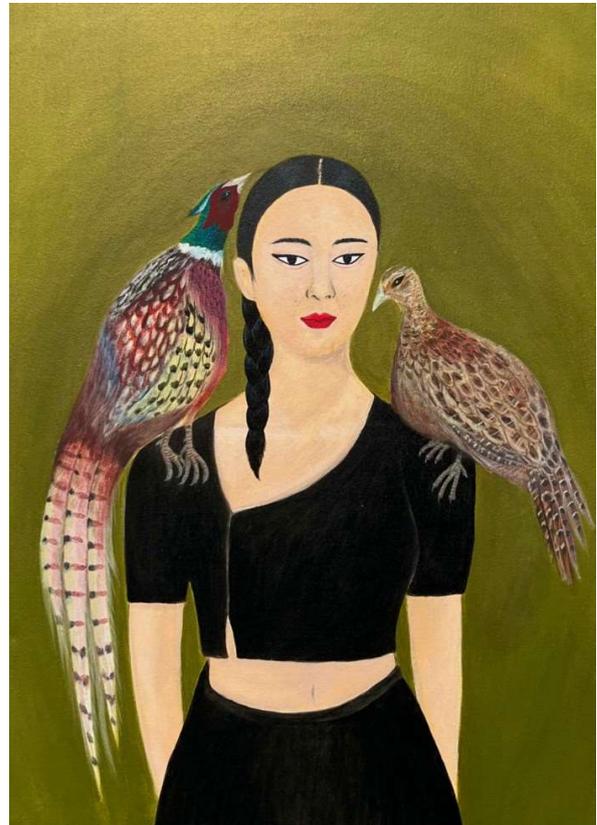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점차 고립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도움과 조언의 손길이 아직 살아있다는 초저를 길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전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삼촌들과 가족, 동료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전시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녕리 어촌계와 박린준 디렉터님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촌계의 허락을 받아 공동창고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전시기획부터 작품, 공간디자인까지 박린준 디렉터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근원을 찾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왔고 오랜 꿈인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제주의 면면을 탐구하고 관찰하며 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제주와 제주의 무속, 그리고 '이계나'라는 이름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고자 하는 열망을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삶의 의지가 있다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 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한국의 얼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무속'을 소재로 한 독창적 작품으로 전세계에 알린 박생광 화백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를 떠난 민족은 없다. 전통을 떠난 민족은 없다. 모든 민족예술에는 그 민족 고유의 전통이 있다." 이는 제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고향인 제주에서 첫 발걸음을 시작한 신진 화가로서, 작품을 만드는 일은 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서순실 큰심방님은 제주의 큰 자산인 큰굿과 이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고자 힘쓰고 계세요. 이러한 큰심방님을 비롯한 많은 제주도민들의 소울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큼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같은 제주 청년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정미혜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2년 상반기에는 제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펜 드로잉, 제로 웨이스트 모임, 나의 마을 이야기를 코딩하여 음악 만들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의 성인 장애인 대상 미술 수업에 참여하면서, 미술 교육에 관한 관심도 커졌어요. 하반기에는 초등학교의 특수아동을 돕는 일도 시작했고, 아동들의 예술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개인적인 예술작업에는 집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어요. 사실 이번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벅했습니다. 좀 더 많은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게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빨강이 정미혜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결혼과 임신, 출산입니다.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요. 여성이 엄마로 성장하는 과정은 한 차례의 죽음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엄마로 성장하기 위해 저에게 내면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작아진 옷을 정리하다가 빨간 티셔츠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때 떠올랐던 이미지로 만든 것이 ‘빨강이’입니다. 마침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 그 시간을 저는 빨강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린 아들에게 우울한 엄마의 모습만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빨강이’는 무엇보다 뜨거운 삶의 열정과 사랑을 뜻합니다. 심리적으로 죽어가던 저에게 새롭게 수혈된 건강하고 신선한 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만 39세 이전에 딱 한 번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 준비, 땅! 지원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엄마가 된 이후 저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며 살아왔어요. 엄마라는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핑계로 무엇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막상 덜컥 선정되고 나니 겁이 났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한참을 끙끙 앓으며 시작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새롭게 시작한 일에 적응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나 해내야 했습니다. 책임과 역할만을 하며 사는 삶에는 더이상 열정도 흥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제주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디지털 드로잉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의 핵심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나만의 감각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일과 육아 사이의 틈난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에 아이패드와 아주 좋은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이패드부터 샀습니다. 혼자서 조금씩 아이패드의 디지털 드로잉 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툴지만 틈틈이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각만큼 잘 그려지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혼자 익히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고 스스로를 부족하게만 생각해 왔는데, 막상 자리에 앉아서 그려나가다 보니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문적인 그림책을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르기에 서툴고 투박했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려낸 엄마들을 위한 그림책을 그렸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드로잉으로 작지만 꾸준한 나만의 이야기를 쌓아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들이 모여서 어른들을 위한 만화책, 에세이, 그림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엄마, 예술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잘하며 삶을 살기란 참 어렵지만, 어릴 적부터 꿈꿨던 예술가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예술가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술가라고? 그렇게 말 할 수 있을까? 아마추어이자 취미활동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 말 뒤에 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웬지 예술가라고 하면, 종일 예술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기에, 보통의 대한민국 엄마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의 성장도 놓치고 싶지 않아 소소한 예술가로서의 시간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돈은 적게 벌더라도, 나의 시간을 챙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자유시간을 엄청 치열하게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그저 저 자신과 홀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결국은, 자신의 민낯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면의 바닥까지 파고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술가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책 제작

성원혁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무명 성원혁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에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어떤 것을 주요 활동으로 꼽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음반회사 소속 작곡가님과 만우절 기념 NFT 앨범을 발매했고, NFT 작품 발매부터 콜라보레이션 작품 전시, 커뮤니티 콘텐츠 제작(작가 인터뷰, 프로그램 제작) 등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난 한해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청년 준비땅!' 지원사업을 만나게 된 일도 정말 꿈만 같네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저의 올 한해 주요 활동 키워드를 'NFT&메타버스'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저는 NFT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라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작가, 글 작가, 작사가, 콘텐츠 창작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등등 '성원혁'이라는 '본캐'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무명'이라는 '부캐'를 통해 해내고 있습니다. 부캐를 '무명'으로 한 이유는 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를 함께 담았습니다.



메타버스로 뺏어가는 제주 (NFT 교육 프로젝트)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술과는 전혀 무관한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예술의 '예' 자도 모르는 그저 가볍게 즐기는 소비자로서 나의 영역을 조금 넓히는 용도로 예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육지' 처럼 즐거운 Web3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적 한계에 부딪혔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깊게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비교적 늦게 관심 두게 된 제주의 예술을 살펴보니 정말 매력적인 주제와 환경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주의 매력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서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비록 아직 예술적으로도 크리에이터로서도 무르익지 않고 바쁜 현실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 내면을 좀 더 다듬어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청년 예술가로 봐주시고 이런 소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해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예술가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작품을 내놓기 전에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세상은 넓고 다양하며 그 다양함 속에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벼운 작품을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듯이요. 제주의 매력 속에서 언제나 제주의 예술을 빛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술가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송준한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 주요 활동의 소재의 키워드는 다원예술, 거리극, 제주4.3사건입니다. 이 3가지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2022년 11월 27일 제주 시청 거리에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연극과 연주회를 합친 공연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거리에서 공연함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의미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꾸준한 송준한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꾸준하게 뭐든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획자 송준한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면, 최대한 창의적이게 다 각도로 보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봤어요!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기획자 송준한으로 선정되었으나, 기획뿐만 아니라 연출, 배우 캐스팅, 음악 감독까지.. 많은 일을 혼자 해야 했기에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좋은 기획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죠?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짐하고 노력하면 결국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먹고 모두 도전하고 달려가세요.

제주도 거리 뮤지컬

현예찬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에서 연출부장으로 활동했던 때 가장 왕성하게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주로 무대감독 등 업무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이 기획자의 길로 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공연의 부분을 보기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에서 했던 활동들은 신춘음악회, 전국 학생 콩쿠르, 신인 음악회, 우크라이나 평화음악회 등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올해 10월에 처음 발표했던 창작오페라 ‘홍윤애’입니다. 창작오페라 ‘홍윤애’는 조선 중기, 제주에 살았던 ‘홍윤애’라는 여인과 ‘조정철’이라는 유배인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예요. 어쩌면 금지된 사랑이었을지 모르지요.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이야기가 제주에도 있는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들었다는 일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실제 홍윤애가 고초를 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관덕정 목관아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를 더욱 가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

-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주관하여 저희 학생들에게 공연기획 기회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4.3사건을 주제로 연극과 클래식 연주를 결합한 무대를 기획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했던 기획이었어요. 성과가 좋고 나쁨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이해하고 기획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음악기획자 현예찬입니다.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저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조금은 투박하지만 ‘음악기획자’라 정했습니다. 저의 전공인 ‘음악’ 그 기본에 충실 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기획자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그 창의성을 다양성으로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문분야인 음악 분야의 기획부터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기획자’가 아닌 ‘음악기획자’로 저를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연뿐만이 아니라 음악이 관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해하고 기획하고 싶습니다.

길거리 역사음악회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번에 제주의 역사와 클래식 음악을 결합한 연주회를 기획했습니다. 그 연주회는 시청 벤처마루 앞 광장에서 일종의 ‘버스킹 공연’으로 진행했어요.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연주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니다. 제 전공은 클래식 음악이지만, 클래식 음악연주회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어요. 연주회는 보통 클래식 음악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난도만 높은 곡으로 1시간 프로그램이 짜여있습니다.

중간에 해설이 있다 해도 곡의 배경 등에 대한 난해한 해설만 가득해 연주회의 재미를 반감시키죠. 연주자가 곡을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겠지만 관객이 이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면 서로에게 win-win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곡의 해설 방식을 조금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곡 순서에 따른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춰 해설을 진행했어요. 이번 청년, 준비 땅! 지원사업으로 기획하게 된 ‘길거리 역사음악회 - 제주의 근현대사’는 제주의 근현대사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스토리에 맞는 음악을 접목해 연주회를 장식했어요. 제주의 역사는 제주도민이 잘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극히 일부뿐이고, 저 역시도 이 공연을 기획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주와 해설로 시너지 효과를 내 제주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일부 관객의 반응이 이 연주회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잘 보완해 더욱더 풍성한 음악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 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그 기회를 자신감이 부족해 쟁취하지 못하는 제주 청년 예술가들을 종종 봅니다. 저 역시도 ‘청년 예술가’로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을 해나가며 나아가려 합니다. 결국 이렇게 노력하며 정진하는 친구들이 최고의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최유라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배우 시소 최유라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는 다양한 청자들과 만날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청년창작자 ‘즉흥극 워크샵 IN 크라’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제주 청년들과 만날 수 있었고, 아이들, ‘예술놀이터에서 놀다’ 어린이 예술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자들과 만날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별달별달 찾아가는 성평등 공감 콘서트 즉흥극 공연으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과도 만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때도 오늘 in 크라쇼 케이스로 여러 연령층의 크라를 사랑해주는 관객분들과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저는 즉흥극 활동을 하면서 ‘시소’라는 별명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극에는 일방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있을 때도 있지만 상하 관계가 서로 뒤바뀌기도 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연극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가 느끼기에 마치 ‘시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별명을 ‘시소’라 짓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의 일상이 투영되는 즉흥극을 주로 작업하는 저는 시소처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배우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배우를 하기 위해 제가 자란 표석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생계가 우선인 이곳에서 연극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깊이 존재하고 있었 던 거죠. 그랬던 저의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는 공연이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꽤 긴 공연을 보고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든 관객이 기다리고 계셨던 모습은 제가 '여기 표석에도 연극이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관객 한분 한분이 인사하시는데 '좋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오랜만에 대학로에서 보았던 연극이 생각난다', '이제까지 본 연극은 연극이 아니었다'라며 치하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연극에 대해 여러 궁금하셨던 것들을 물어보시는 관객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트려 주시는 전환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연극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청년 배우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로 인해 스스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건강해지는 선순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것은 저에게 정말 행운이었고, 감사드리는 일들입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예술로 세상에 이야기하는 일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예술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며,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남깁시다!

윤보배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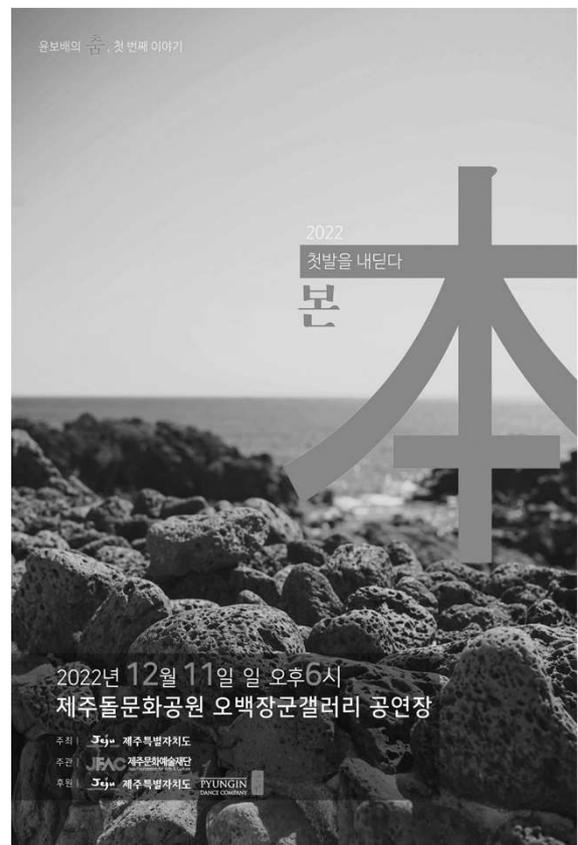
저는 젊은 전통 예술가로서 정말 중요한 전통춤을 계승하고 보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까지 취왔던 춤을 재정립하고 더 성숙한 춤을 추기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 전통 춤을 공부하고, 첫 번째 개인 공연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 2년간 가지 못 하였던 해외 공연도 다녀왔습니다. 한국무용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공연할 기회가 꽤 잦은 편이라 코로나 이전에는 공연을 꽤 많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후에는 다니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해외로 나가 우리 문화를 알리고 오니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술을 실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승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춤 전승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춤 강습회를 열어 제주무용인들에게 전통춤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보배가 배가되다, 윤보배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보배 寶 더할培로 쉽게 말해서, 보배가 배가되다 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보배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본 공연을 준비하며 제주 예술인이자 청년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랐고 이곳에서 춤을 처음 접하였습니다. 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한 이후에도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저의 첫째 춤 공연으로 제주 향토 춤을 비롯하여 제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한국 춤을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짜고 공연을 기획했어요. 이번 공연을 통해 제주 관객들이 한국 춤의 다양성에 대해 알게 되고 이후에도 한국 춤의 흥과 멋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저는 예술을 긴 마라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치지 말고, 각자의 방식대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멋있게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요. 화이팅!

김경만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의 개인적인 주요 활동은 여러 극단과 다양한 연극 작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8월부터 '마술가게', '민요패 소리왓과 '우리는 제주도의 가의없는 좀녀들', 세이레 극단과 '뚝추렴', '자청비' 연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며 연기를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준비 땅! 지원사업을 통해 연기에 대한 비슷한 고민이 있는 제주 청년 배우들과 함께 연기 영상을 제작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29km 김경만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km는 제 이름의 약자기도 하고 또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앞의 숫자 29는 제 나이를 뜻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를 거리로 표현해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을 '29km 프로젝트'로 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기 스테디 패러디 영상 제작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올해에는 처음으로 지원사업에 지원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과 관련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든든한 도움입니다. 예술 활동을 하면 할수록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 다양한 워크숍과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저도 이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점이 사업들에 가장 고마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예술생태는 소비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큰 차이로 자립적인 예술 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도 좋은 예술 작품이 늘어나면 소비자 역시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은 필수적이라 생각해요. 이런 사업이 그 시행착오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도전의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기에 정말 감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제가 연극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완성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로컬리연구소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 8월에는 영아트갤러리 대전에서 현대 회화의 새바람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국제블루아트페어도 대구엑스코에서 진행할 수 있었어요. 9월 거리 퍼포먼스 아트 '잠식'을 이중섭거리, 제주시청에서 공연했습니다. 개인전도 열었어요.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展)을 라포르 하례 제주에서 진행했어요. 고택아트페어에도 참여했고, 11월에는 아트프라이즈 강남논현가구 거리 아트관에서 전시도 했어요. 다양한 기회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한 해였어요.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환경 예술가 장영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대 사회, 그 삶 속에서 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공존과 관계를 주제로 작품을 만듭니다. 환경을 주제로 평면 회화에 국한되지 않고,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재료로 사용한 업사이클링 아트나 퍼포먼스 아트, 영화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작품 활동을 통해 환경 예술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환경 예술가로 명명함으로써 제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올해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오랜 시간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주에 터를 잡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청년들과 각자 재능을 품앗이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덕분에 좀 더 좋은 의미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어요. 특히, 기후 위기 행진일에 맞춰 진행한 거리 퍼포먼스 아트 ‘잠식’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도전했던 퍼포먼스 아트에서 작가로서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기후 위기 행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환경 예술가로서의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작가로서 제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과 작품 세계관을 더 확고히 하는데 역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제주의 자연과 분위기, 그리고 제주에서 터를 잡고 각자의 길을 나아가려는 멋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가 예술가로서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작품에 자신감과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많은 예술가분들이 이미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듯,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이인아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주바다, 오름, 숲의 소리를 결합하여 작곡한 음원을 발매하였습니다. <공생>을 주제로 제주 자연의 소리(슬리핑라이언 녹음)를 넣어 10곡의 음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중 '밤의 숲을 걸으며', '목장의 아침블루스' 라는 곡을 라디오에서 발표하였고 8곡은 음원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곡을 하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듣고 또 들었는데, 가공되지 않은 본연의 소리가 주는 생명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한편 '자연의 소리'라는 단어에서 예상되는 편안함을 넘어 색다른 감정을 유발하는 소리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들이 높은 피치로 짹짹거리거나 풀벌레의 멈출 줄 모르는 소리의 경우, 계속 듣다보면 마치 이들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만 같고 숨겨진 공격성을 자극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vs인간의 싸움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독특한 결과물이 나온듯합니다. 이전에 안정감을 느꼈던 파도소리는 어느 순간 서늘한 부분이 있었고, 평화로운 밤에 불쑥 섞여 들려오는 산개구리 소리는 문득 떠오르는 회상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토대로 작업했습니다. '자연의 소리'라는 배경이 음악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주었기에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흥과 계획의 조화에서 오는 우연성이 재미있고 자유로웠던 작업입니다.

단편영화의 음향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음향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굉장히 어렵고 체력소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음악에 더욱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스밈 작가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음악 이외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스밈 프로젝트.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며 나도 소설 써보고 싶다.. 조각도 해보고 싶다.. 전시기획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스밈활동을 통해 조금씩 배우는 중입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젠아&리앗 이인아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젠아는 저의 활동명입니다. 리앗은 제가 작업하는 공간의 이름으로 '소리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무수한 소리의 씨앗들을 음악으로 퍼뜨리고 싶은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숲의 음색'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올해 '음악이 사람에게 주는 정서 전달력'에 대한 작은 탐구를 했습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멜로디, 화성, 리듬, 음색 중 어느 것의 비중이 클까? 과거의 일은 현재의 음악경험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다면 왜? 어떤 연관이 있어서? 등의 질문들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 정서를 카테고리화 하고 각 정서에 맞는 음악요소의 특징들을 분석했습니다.

아직 답을 모두 찾아내진 못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음악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닮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음악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시간예술이기에 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오직 흐르는 동안에만 음악으로 존재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쉬이 있을지언정 언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만족을 유발하든, 고요함을 느끼게 하든, 슬픔을 일으키든 그냥 한 음 한 음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며, 지금의 나는 멈춰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음악처럼 흐르는 생을 살고 싶다. 라고 느낀 2022년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 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동료여러분, 올해도 작품 활동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챙기며 즐거운 예술 활동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준석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전까지는 작업의 양이나 작업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기한에 기계적으로 맞춰 작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최소한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어요. 페인팅의 경우에도 전시를 위해 작품의 크기를 적당히 맞춰 작업했었다면, 올해에는 약 200호 정도의 작업을 목표로 하고 여러 구성으로 수정을 거쳐 작업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기반으로 한 드로잉 역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목표로 100여 장 이상의 사진을 합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던져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작업 방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고민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움'을 주제로 방향성을 잡고 작품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내 마음속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억 속에 존재하는 어떤 사건과 그때의 이야기를 그려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나의 감상을 자연물을 통해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기반으로 한 드로잉 작업의 경우에는 조형적 계획보다는 대상과 작업을 풀어나가는 행위 중심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기억 느낌, 그림 작가 박준석입니다.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생각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반면 그림은 완성되는 순간 영속성을 얻습니다. 저는 그 영속성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생각과 행위들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모순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바뀌지 않을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거나 자그마한 입자들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세계는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러한 혼란 속에 위축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میم은 그런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예술가와 만나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예술에는 정말 다양한 시각과 해석,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배움에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는 것 등 많은 것을 느꼈어요.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들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 안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생존해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저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걸음 위한

스میم 활동에서 가장 특별했던 것들은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보석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술가라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직업을 가지고 자신들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확신에 차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각자의 분야는 달라도 스میم 프로그램 안에서 공통된 고민을 나눴던 일은 신기한 경험이었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해준 기억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과분한 지원과 따뜻한 도움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전하고 고민하면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양한 분야의 여러 예술인과 나누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산동산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함현영 작가는 자신의 열매 작업들을 여러 전시에서 선보였습니다. 1월엔 새당라움에서 'zzz space' 전시로 리사이클링 업체와 협업한 전시에 참여했구요. 4월에는 의류 브랜드와 협업하여 WOYWOY라는 팝업전시를 꾸렸습니다. 6월에는 매월의 한 창고에서 음악가분과 '유기적 틈' 2인전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7월에는 사계리에 위치한 농협을 개조한 카페, 사계생활에서 'NON-FITER JUICE' 개인전을 작게나마 꾸렸습니다. 11월에는 산지천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기후 제주'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현규 작가는 올해 캔버스에서 진행한 꽃 전시에 참여했어요. 꽃을 주제로한 작품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두 공간을 공간연출, 시공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열매 작가 함현영과 이모저모 예술가 임현규가 함께 작업하는 고산동산입니다.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고산동산에 위치한 한 작업실로부터 시작되어 청년작가들이 모인 팀이에요. 임현규 작가가 중심이 되어 설치, 가구,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가분들이 함께 모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밈은 도자기 작가 임현규, 열매 설치 작가 함현영 두 명이 지원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저희는 올해 스밈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재료를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황한 목표 대신,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을 실천하려 했어요. 목표를 설정한 이후, 작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나 과정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쓰레기를 줄이고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 제작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더불어 재료를 구입 할 때 재료의 성분을 확인하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재료와 그 가능성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 작업에 집중하며 예술적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임현규 작가는 도자 작업을 단순한 코일링 작업으로 흙을 쌓아올려 화분으로 만들었지만 최근 흙으로 큰 조형물을 만들어 안에 속을 파고 가마에 굽는 방법으로 작업을 바꿔 진행하였고, 목공 작업 또한 외주로 도면을 받아 시공하는 방향이 아닌 작가가 직접 공간을 기획, 연출 시공까지 담당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함현영 작가는 애착 인형에서 모티브를 얻어, 열매의 모습을 한 인형 시리즈를 제작하였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아이에게 안정감을 선사하는 애착 인형을 열매의 형태로 제작하여 스스로에 위안을 주는 작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손바느질하여 작품을 만들며 시간과 애정을 담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임현규 작가는 직접 만든 도자기 화분 안에 다양하고 기괴하게 생긴 모습의 식물들을 식재를 합니다. 그 식물들의 형태는 작고 기괴하지만 언젠가 꽃을 피우기도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작가, 청년들은 움크리고 있는 씨앗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은 양분이 되어 언젠가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박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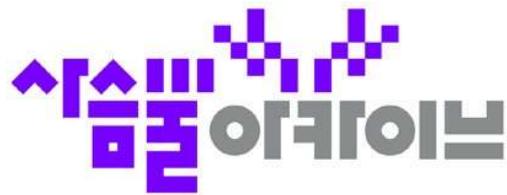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생각 수집, 사슴뿔아카이브 박민희입니다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예술 하기, 예술로 소통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그것은 인간 답고자 노력하는 일, 생각하는 일, 표현하는 일이라는 작은 결론을 내려보았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사슴뿔은 한자로 生角인데, 우리말 생각과 동음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또한 사슴뿔처럼 계속 자라나고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사슴뿔의 형태가 마치 생각을 시각화한 것 같아요. 동시대에 아카이브는 기억을 기록물로 만드는 활동까지 확장되고 있고 공공의 영역을 넘어 각계각층 사적 영역의 기록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쇄물과 디지털 자료가 넘쳐나고 있으며 공공 아카이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면 깊게 생각하는 힘,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즐거움을 잃어가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때문에 사슴뿔아카이브는 무형의 생각 수집, 글쓰기를 중심으로 활동해요. 생계에 치여 생각하는 일을 잃지 않기 위한, 스스로를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박민희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랫동안 갈증을 느끼던 일이었는데요, 스میم을 계기로 사슴뿔아카이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딩과 웹서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올해 3월 첫 글을 게시하며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어요. 예술 현장의 소소한 사건과 그 기억을 글로 묶어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원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예술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미술 전문 잡지 등 역시 존재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수많은 예술 현장을 모두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소명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아카이빙, 콜렉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연구자로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예술 현장을 기록하고 수집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슴뿔아카이브를 선언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시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제주도 내에 개최되는 전시 소식을 살펴보고, 가능한 현장에 방문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람한 전시의 후기를 제때 성실하게 작성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

다. 평소 SNS 관리 운영과도 거리가 멀었던 터라, 온라인으로 대중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에 좀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야겠다 다짐하고 있어요. 계획했던 것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공중을 향해 홀로 발화하는 일에 대해 다각도의 이해를 높이는 중입니다. 5월 발행했던『임흥순의 할머니 옷: 29회 제주4.3미술제 개막식에서』는 조회 수 1천이 훌쩍 넘는 통계를 보여주어 콘텐츠에 따라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감했고, 6월『선』의 역설: 김신애 개인전 후기』발행 후에는 해당 작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직접 기획한 전시 도록에 수록한 글들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예술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지역(제주)의 예술생태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이 왜 뜻깊게 다가왔는지 등 다 좋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지만, 분명 일상의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당시 쏟아졌던 많은 담론 중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라는 문구를 좋아했어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이 문구가 많은 생각을 독려하거든요. 기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또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잖아요. 내가 나를 어떤 환경에 둘 것인지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혹은 나 자신을 훼손하는 외부 환경이 감지된다면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어요.

올해 저는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움이 있는 낯선 곳을 찾아다녔고, 새로운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었어요. 물론 두려웠지만요. 올해 새로운 만남 들을 통해 나에 대해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운 만남도 있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만남도 있잖아요.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내 마음에 충실하기로요. 올해의 큰 수확은 글을 읽고 쓰는 일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결과물에 대한 강박 때문에 사슴뿔아카이브를 활발하게 운영하지는 못했지만요, 이 일을 꾸준히 하려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오랜 지인들에게 핀잔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주도 보다는 서울이 더 좋은 환경이지 않냐는 질문 역시 받아요. 어떤 부분은 수긍하고 어떤 부분은 반박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좋거든요. 하지만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환경일까요? 이철수 판화가의 작품 중 <먼길 가는 새들>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먼길 가는 새들. 함께, 혼자 난다” 우리는 예술이라는 길을 함께 가고 있을까요? 나는, 혼자 쉽 없이 날갯짓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나부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사슴뿔아카이브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슴뿔(생각)' 아카이브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제주는 지역의 특수성과 동시대의 보편성이 아주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과거에는 고립된 섬이었지만 현재는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매력적인 예술 플랫폼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과 같아서 공부할 게 많은 지역이고요. 아름답고 다양한 천혜 자연이 있어요. 예술가에게 제일 중요한 영감이 풍부한 곳입니다. 혹시 영감이 필요하다면, 제주도로 오세요. 감히 추천해 드립니다.

장혜연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키워드를 이스터 에그로 설정한건 주요 활동을 위한 밑거름이었다! 올해는 사진에 빠져 ‘오솔빛’이라는 이름으로 스냅사진 계정을 만들고 사진 영상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여행 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여행 코스를 짜보기도 했고요. 물밭이라는 이름으로 웹툰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녀만화를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해녀만화를 가지고 웹툰 피칭, 서귀포 만화 축제에 거리 전시와 제주웹툰캠퍼스 내에 전시되기도 했고, 비즈니스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부산 국제만화축제에 부스로 참여도 하고, 부산 상상마당에서 그림 전시도 진행했어요! 내년에는 중요한 작업들에게만 집중하고자 올해는 자잘한 활동을 줄이고 정리하는 해를 보냈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이스터 에그 작가 물밭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이스터 에그란 부활절 달걀이라는 의미로 프로그램 내에 개발자가 숨겨둔 장난을 뜻하는 게임 용어입니다. 물밭이라는 이름으로 일러스트와 만화작업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인스타 툰을 그리고 있고, 또 사진과 영상작업을 하는 이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파생시키는 게 재미있네요. 물밭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저의 다른 이름의 활동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반갑지 않겠어요?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올해는 좀 무리하는 해였습니다. 직장도 다니면서 개인 작업도 하고, 지원 사업도 넣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받아서 했어요, 모든 스케줄이 몰렸을 때, ‘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손목 부상이 크게 와서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일정은 취소하고 쉬고 있습니다. 약간 주마등 같은 것도 스치고요?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작품을 본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편안함을 느꼈으면 하고 작업을 하는 편인데 스스로를 이렇게 내몰고 건강도 잃어가는 사람이, 느긋하고 편안한 치유되는 작업을 하려 한다는 게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둘러보니 제가 스스로에게 준 환경은 방치였어요.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고, 나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하다 보니 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친절하고,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렵네요. 나를 홀대하는 게 편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기분이 티익스프레스 뺨쳐요. 스밈 활동을 통해 멋진 사람들을 알게 되고, 다양한 작업물들을 접하면서 작업에 대한 고찰을 하기도 했지만 특히 ‘스스로에게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작품과 그 작업물에 떳떳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을 전하겠어요. 제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말입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고찰을 하되 너무 깊이 빠져들지는 마시고. 내가 나라서 괜찮겠거니, 대충 대하지 마시고, 나랑 친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종협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연기하는 피아니스트 오종협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저는 피아노를 뿌리로 연극을 접목해 '연기하는 피아니스트'라는 저만의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여러 분야의 예술을 복합적으로 시도하며 활동하는 '멀티포텐셜라이트' 예술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장르의 결합을 시도해 왔는데, 그중 피아노와 가장 잘 맞는 장르가 연극이었기 때문에 연기하는 피아니스트를 키워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지원 사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원'만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술가로서 자리 잡는 초반에는 지원 사업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사업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에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활용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기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기여할 수 있고,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고, 세상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술로 무엇에 기여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의 가장 주요했던 활동은 ‘인지의 불협화음’이라는 ‘1인 피아노극’ 제작이었습니다. 극의 기획, 각색, 연출, 연기, 연주까지 모두 제가 했고 추가로 맵핑 프로젝션이라는 공연영상기술을 활용하여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들이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에 온전히 몰두할 수 없었던 것이 특히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장르에 대한 도전과 준비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1년여 시간 공을 들여 2인 피아노극 작품을 위해 배우 한 분과 함께 대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대중들에게 보여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활동은 ‘피아노 인 아트스페이스’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개인으로 활동을 해 왔으나 올해에는 단체를 등록 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체를 설립한 후 한국무용과 함께 트락 페스티벌 공연도 했고,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서는 짧은 영상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상’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되어주었습니다.

연기하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예술가가 주변에 없었기에 제가 하는 예술의 방향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콘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합’이라는 장르가 빛을 발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해온 연기활동이 영상의 이야기를 끌고 나갈 때 도움이 되었고 영상과 함께 공연을 해왔던 것들이 영상 촬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가장 큰 무기인 피아노는 작품 제작에 다채로운 표현을 할 수 있게 핵심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하며 축적되었던 경험과 노하우들이 공모전의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어줘 뿌듯함을 느꼈고 저의 활동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올해의 단어는 ‘확신’입니다. 작년에는 저라는 예술가를 멀티포텐셜라이트로 소개했습니다.

여러 방면의 재주를 가진 저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단어가 ‘나’를 명확히 표현해주지는 못한다고 느꼈어요. 올해에는 드디어 저라는 예술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2022년은 제가 ‘연기하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 고귀한 시간이었어요. ‘연기하는 피아니스트’로서 공연도 자체 제작했고 ‘연기하는 피아니스트’를 필요로 하는 공연 섭외, 콜라보 공연섭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점이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내년 역시도 ‘연기하는 피아니스트’라는 저만의 브랜드를 강화하며 더욱 발전하여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에 더하다

제주에서 예술을 하며 저는 많은 가능성을 봤습니다. 좋은 공연은 모두 서울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공연이 너무 허무할 정도로 좋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고, 서울에서의 활동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도 충분히 좋은 예술가들이 많고 공연을 찾는 관객들 역시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또, 요즘은 온라인 예술 활동이 많아지고 쉬워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의 지역적 한계를 탈피하고 관객과 만나기 쉬워진 현재 환경은 제주 예술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기획프로젝트 스밈’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밈’ 활동은 제게 지원 사업으로부터 독립을 가능하게 해준 감사한 사업이었어요. 제가 처음 ‘스밈’에 선정되었을 때 잡은 목표는 이 사업을 끝으로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의 목표 역시 지원 사업에 구애되지 않고 독립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실히 예술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이은경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환경을 주제로 곡을 공동 창작하고 연주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소멸과 저항’을 주제로 삼 악장으로 이루어진 곡을 김우중 작가님과 함께 창작했습니다. 사라져가는 많은 존재와 사라지지 않기 위한 그들의 저항을 담은 곡이었어요. 숲이 사라져가고 사막화되는 환경 속, 살아남기 위해 저항하는 도마뱀의 모습을 담은 1악장 Resist. 지구에서는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우주로 보낸다는 뉴스에 영감을 받아, 그 쓰레기들이 결국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경고를 담은 2악장 Return. 가장 마음 아프게 와닿는 바다의 이야기. 특히 바다거북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은 3악장 Rebirth. 원래는 독주회 때 연주할 곡으로 의뢰를 받고 공동창작을 하고 있었지만, 사정상 타악 듀오 콘서트에 올리게 되어 편곡을 진행했습니다.



- **비건책방과의 협업:** 비건책방과의 협업이 성사됨으로서 비건을 공부하게 되었고 역시나 환경을 이야기하는 비건에 꽂혔다. 작은 공간인 책방에서 연주회를 열게 됨으로서 새로 창작된 비건음악을 연주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기타리스트와 전자음악과 마림바가 함께 연주를 하게 된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 **소호마타악듀오 창단연주회:** 본인이 소속된 소호마타악듀오는 2021년에 창단되었지만 올해 창단연주회로 제1회 연주회를 열게 된다(2022년 12월 3일). 처음 창단할 때의 마음처럼 타악기를 대중화시키는, 타악 연주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멜로디적인 음악으로 리스트를 꾸렸고, 악기 및 곡 설명과 시각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영상을 함께 준비하여 환경과 타악기를 이야기하는 공연으로 준비중이다.
- **마림바 협연예정(불가리아):** 2022년 12월 12일 불가리아에서 마림바로 협연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온 기회가 생겼고 역시나 느낀 것은 준비가 되어있어야 기회를 잡는다는 것. 더 준비해서 첫 유럽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는게 목표이다.

이은경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MERRY chRHYTHMas~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제 키워드는 뭘까 계속 고민하게 되네요, 작년엔 바다에 비친 해의 색을 좋아해서 오렌지 씨였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특유의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그날만을 고대하며 살아요. 그래서 '리듬을 다루는 타악기 연주자' 은경으로 크리듬마스라 지어 봤어요. 내 키워드를 찾는 그 날까지 힘을 내 보겠습니다!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연주자로서 만들어진 음악을 내 방식대로 연주하는 것이 나의 창작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왔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창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나타내는 것을 아직도 어떻게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멜로디로, 타악기 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장르와 협업을 하고 싶은 나로서 더욱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해선 나의 카드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장르의 음악과들과 만날 일이 몇 번 있던 올해였는데 같은 지역에서 음악을 하는 예술가 라는 것은 맞지만 장르에 갇혀 너무 소극적으로 지내온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실용음악, 댄서분들과 교류가 있던 올해였던 만큼 그런 분들과 작업을 하려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걸 하고 싶은건지 , 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겠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재단을 많이 활용하기.. 정보력이 힘이라고 이렇게 같은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거나, 원로 예술가들과의 자리가 만들어진다거나 활동을 하며 답답한 것, 미래에 대해 하게 되는 고민과 같은 것들이 나 뿐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는 순간 마음의 짐이 반쯤씩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도 물론 도움이 확실히 되지만 같은 예술가들을 (굳이 같은 장르가 아니어도) 만나게 되는 자리가 생기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며들다

송형훈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는 꽤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5월에는 서울에서 제 작품을 전시했어요. ‘아츠 클라우드’라는 기업의 후원으로 'Artist of the Week'라는 릴레이 개인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미완성으로 공개했던 영상 문학 작품 <릴리가 두고 간 영원>의 완성본을 해당 전시에서 공개했습니다. 6년 전부터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전시의 마지막 날 처음으로 뵈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제주 새탕라움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에서 다원 예술 분야로 지원을 받아 <해바라기 소년과 빛의 나비>라는 제목의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제 장편소설의 내용 일부분을 추출하여서 영상, 문학, 설치를 통해 복합적인 표현을 시도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7월 말까지 5개의 복합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전시를 준비하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약 열흘간, 전시 현장을 직접 지키며 관객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과학 관련 미디어아트 공모전에 작품을 하나 출품하였는데, 최근에 1차 예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를 통과하게 되어서 입상은 확정됐고, 이제 12월 14일까지 본선 동안 상위의 상훈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영상으로 입상 후보에 들었던 적은 없었기에 정말 뜻깊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술가님을 키워드로 표현해주세요!

영원한 송형훈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가요?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세상에 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라는 개념이 이 지구에 되도록 오래 남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리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오래 살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고 싶어요. 흔히, 클리셰라고 불리는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망을 가득 담아 ‘영원한’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보았습니다.



해바라기 소년과 현이 잘린 푸른나비

2022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이걸 작성하고 있는 11월을 끝으로, 작년부터 진행된 <스밈>의 활동이 끝이 납니다. 어떠한 네트워크도 없던 저에게 벌써 많은 동료와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수년간 혼자 고민하고, 혼자 실행하기를 반복하면서, 주변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정말 저를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선 자신감도 많이 얻고, 열심히 작업을 하시는 동료분들을 직접 보면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하나 꼽아보려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위 답변에 나열한 세 가지 활동이 전부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모두가 '처음'과 연결이 되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아츠 클라우드에서의 전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한 전시'며, '처음으로 6년 동안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신 분을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제주 새탕라움에서 진행한 전시는 '제 생의 첫 개인전'입니다. 아츠 클라우드 전시를 중간에 하게 되어 시기상으로는 먼저였지만, 올해 1월부터 준비한 첫 개인전은 <해바라기 소년과 빛의 나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은 '처음으로 영상으로 상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활동은 전부 기억에 남습니다. 쪽적어보니 올해 열심히 하긴 했네요. 마지막으로 제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끝내겠습니다.

“형훈아, 올해 수고 많았다!”

동시대를 사는 제주 청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청년 예술가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일을 한다는 점과 그리고 '이분도 나처럼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부터 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작품 활동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서로가 좋은 감정을 느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잊히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